

충장으로 붐비는데... 텅 빈 'K-POP 스타의 거리'

시, 수십억 투입... BTS 제이홉 팬메시지 조형물 등 콘텐츠 조성
유행 지난 노래·반복되는 영상 등 특색없는 '특화거리' 시민 의견
전문가들 "소비 주체 면밀한 분석으로 방문객 유인 대책 세워야"

광주시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방문객 증가 추세와 맞물려 충장로 'k-pop 스타의 거리' 활성화가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충장로 상인회 등에 따르면 충장로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떨어지는 것과 맞물려 최근 충장로에서는 주말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유동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결과 충장로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2024년 1분기 31.02%, 2분기 25.3%, 3분기 24.9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상인들은 광주시가 충장로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원을 투입한 'k-pop 스타의 거리'는 방문객 유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만성적인 콘텐츠 부족으로 방문객 자체가 적어 주변 상권 활성화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4일 방문한 k-pop 스타의 거리는 방문객이 드물어 한산했고, 그나마 한 두명 k-pop 스타의 거리에 들른 시민도 '경유' 목적으로 지나갈 것 뿐이었다. 같은 시각 바로 옆 골목인 충장로우체국 앞 거리가 발 디딜 틈 없이 복새통을 이루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k-pop 스타의 거리 입구에는 주변 상인들이 내놓은 쓰레기 봉투 30여개가 방치돼 있고, 불법주정차 차량이 영상 전광판 벤치를 가로 막고 있었다.

시민 장문영(30)씨는 "k팝을 표방한 거리에서 최근 유행하는 '아파트' 같은 노래가 나와도 모자랄 판에 유행이 한참 지난 노래가 나온다"며 "수개월

전에 봤던 영상을 오늘도 그대로 틀어주고 있고, 새로운 스타들이 업데이트되지도 않는 곳을 스타의 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k-pop 스타의 거리는 광주시가 지난 2021-2023년 사업비 37억원을 들여 조성한 특화거리다. 현재 BTS 멤버 제이홉의 팬메시지 조형물과 75명의 스타 핸드프린팅, k-pop 영상 전광판, 미디어파사드, 벽화, 홍보사인물(구 형태), 펜스형 포토존 등이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4억 8000여만원을 투입해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돌 핸드프린팅 등을 지속 추가해 왔다.

지속적으로 '콘텐츠 부족' 비판을 들은 광주시는 올해 예산 5000만원을 들여 'k-pop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인근 충장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시 동구의 사업에 의존하는 수준에 그쳤다.

동구에서 최근 오픈한 'k-pop 공유카페'를 이용해 협업 공연을 하고, 충장상인회 '라운페스타' 내 프로그램인 '케이팝충장스타' 공연 시 협업하는 식이다. 동구가 추진하는 '충장축제', '스트릿컬처 페스타' 등 축제와 연계해 스태프투어, 미션투어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오는 12월까지 광주시가 자체 추진하는 k-pop 공연을 인근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입구 무대에서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정작 k-pop



24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k-pop 스타의 거리가 주말임에도 한산하다. 거리 입구에는 방치된 쓰레기가 쌓여 있다. /니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스타의 거리와는 거리가 멀어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인들은 광주시의 k-pop 스타의 거리 활성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최근 상인회 측에서 k-pop 스타의 거리 인근 건물 벽에 레이저를 쬐서 스크린을 만들고 k-pop 공연과 음악을 틀어주는 안도 내놨으나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일성 충장로1·2·3가 상인회장은 "수십억원을

투입해 거리를 만들어놓고 활성화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광주시가 상인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효과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물리적 시설을 세우거나 일회성 프로그램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소비 주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방문객을 유인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미 동신대 관광학과 교수는 "옛 전남도청을 이전한 이후 충장로는 상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면서 방문객이 줄어들기만 반복했다는 점에서 최근 흥행하는 k-pop 키워드를 충장로로 끌고 온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k-pop 관련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충장로 k-pop 스타의 거리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연세대 여파” 의대부터 중위권대까지 영향

“지방권 의대 추가합격 크게 늘 듯”

법원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입시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에서는 모집 정원(250명)의 120.5%에 해당하는 312명이 추가 합격했다.

1차 합격자 전원과 추가 합격자의 20%가 모두 서울대나 다른 대학 의·약대 등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는 같은 해 연세대 인문대 논술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 96명 가운데 단 1명(경제학부)의 추가합격자가 생긴 것과 대비된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은 의·약학 계열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에 함께 지원한다.

따라서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다른 대학 의대나 서울대 자연계열 등에 동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종로학원의 분석을 보면 2024학년도 '메디컬학

과'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있는 99개 대학의 수시모집 추가 합격자는 3333명이었다. 이는 선발 인원의 101.3%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약대의 추가 합격자 비율이 106.7%로 가장 높았고, 한의대(101.3%), 의대(99.2%), 치대(97.8%) 순이었다.

추가 합격자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중복 합격된 수험생이 많이 나와 합격자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대기자가 채우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이뤄졌음을 말해준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이번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는 의대부터 중위권 대학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입시업체의 관측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년도에 경우 연세대를 중심으로 많게는 1000명이 연세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대와 의대부터 중위권 대학까지 포괄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으며, 지방권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확대에 의지한 약·중복합격으로 인한 추가합격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장애인 일자리 참가자 모집

광주 남구, 28일까지

광주시 남구가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할 254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남구는 오는 28일까지 일반형 80개와 복지형 124개 등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특화형 50개 일자리는 다음 달 중 모집한다.

일반형은 남구청과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지에서 업무를 보조한다.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전일제 일자리는 45개,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35개다.

복지형은 1주일에 14시간씩, 한달 동안 56시간을 일한다. 주로 우편물 분류를 비롯해 환경 정리,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인식 교육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화형 일자리는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5개,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45개 등으로 나뉜다.

신청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전남 28일 '첫 눈' 내릴 듯

이르면 오는 28일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첫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 "본격 겨울 한파가 시작되는 28일 광주와 나주·장성·담양·화순·함평·영암·순천 등 전남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광주·전남에는 25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26일까지 광주 전남 최대 40mm, 남해안에는 최

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돼 28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에는 광주 최저기온은 전남보다 4도 떨어진 2도, 순천은 1도, 광양과 나주는 2도로 내려가겠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김다인 기자 kdi@

댐 백지화 광주전남대책위 "댐 추진 중단·공청회 취소"를

신규댐 백지화 광주전남대책위는 24일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신규댐 추진을 중단하고 영산강·섬진강권역 공청회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환경부는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계획을 세우고 신규댐 건설 후보지에 대해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주민이 반대하고,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주민 반대가 심한 화순군 동북천댐 등은 수자원관리계획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후보지로 계획안에 남아있다"며 "댐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소멸을 촉진하고 물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만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5일 신규댐 건설과 관련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영산강·섬진강 권역 하천유역수 자원관리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